
‘떡거리’와 식민지 모더니티

김 철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KAPF)의 핵심적 이론가이며 작가인 김 남천(金南天 1911-1947)의 「T일보사」(1939)라는 소설은 식민지 모더니티에 관한 하나의 충실한 사생(寫生)이다. 출세욕에 불타는 젊은 주인공 김광세는 자신의 유산을 털어 고가품을 구입한다. “종로로부터 남대문통을 거쳐 우편국 앞에서 진고개로” 움직이면서 그는 “에나멜 구두”를 사고, 양복점에 가서 “턱시도를 한 벌 맞추고, 떠벌 뿌레스트를 주문”하고, “낙타 외투”를 맞추고,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내의, 와이셔츠, 넥타이, 흰 손수건, 까만 가죽 장갑, 서류 가방, 화려한 양말, 단장을 산다.

다시 시계점에 가서 “백금 깍질의 ‘론징’을 하나” 사고, 금은방에 들어가서 “백금 인장지환(印章指環)”을 맞추고, 모자점에 가서 “볼사리노”를 사고, “황금으로 만든 카우스 단추를 사고, 녹색 비취의 넥타이 핀을 사고, 향수와 화장 도구를 사고 두 개의 만년필”을 산 뒤 찻집에 들어가 커피를 마신다. 그러고는 “명치정으로 내려와 작은 요리집에 들어가 땀뿌라”를 먹는다.

중일 전쟁의 급박한 전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식민지의 수도에서 소비되는 ‘낙타 외투’, ‘론징 시계’, ‘볼사리노 모자’ 등등의 명품 목록들. 이 기묘한 부조화야말로 전향한 좌파 작가 김남천이 즐겨 작품의 주제로 삼았던 것이었다. 비틀리고 뒤엎힌 식민지 근대의 모습과 그 안에서의 지식인의 방향을 묘사하는 데에 김남천만큼 정면으로 고투한 작가는 흔치 않다. 그리하여 기억할 만한 그의 수작들은 카프 시절의 선전 문학보다는 전향 이후의 분열과 고민을 그리는 작품, 예컨대 「맥(麥)」(1941), 「경영」(1940), 『낭비』(1940) 같은 전향 소설들에서 나왔다.

그중에서도 장편 소설 『낭비』는 식민지의 일상에 깊이 침투한 서양식 생활 모드에 대한 풍부한 풍속사적 보고서이다. 명사십리의 원산 송도 해수욕장에 지어진 최고급 별장에서 벌어지는 지식인 청년 남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은 풍속의 묘사를 본격 소설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했던 작가의 작품답게 당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어떤 사회학적 조사보다도 흥미로운 장면들을 담아내고 있다.

이 소설에는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이관형과 그의 누이동생인 동경음악학교 유학생 이관덕, 그리고 역시 동경 유학생인 남동생 이관국, 그리고 이관덕의 친구이면서 이관국을 사모하는 이화여전 학생 김연, 이 네 청년들의 새로운 습속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장면은 태평양 전쟁의 전운이 임박한 당대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상상을 크게 벗어난다. 약혼자에게 편지를 쓴 이관덕은 편지를 “이중 봉투에다 넣어서 춤을 바르고 양서로 에스자를 써서 봉한 뒤” “흙 드레스로 갈아 입”는데, 마침 수영을 마치고 돌아온 이관형은 “시럽뿌던가 그거 한 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자기 방에 돌아가 “등으로 만든 긴 의자에 몸을 눕”힌다. 오빠의 부탁을 받은 관덕은 “유리잔에 푸른 과일즙을 타서” 들고 들어온다.

바다에서 수영을 한 후 별장으로 돌아와 ‘등으로 만든 긴 의자에 몸을 눕힌 채’ ‘시럽뿌’(syrup)를 마시는 경성제대 출신의 주인공 이관형은 김남천의 또 다른 소설 「맥(麥)」에도 등장하는데, 그는 이 소설에서 식민지 모더니티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발언을 남긴다.

우리들은 이 층에서는 양식을 잡숫고 아래층에 와서는 깍두기를 집어먹는 그런 사람들이오, 또 그 정도로 아주 될 대로 되어 버려서 모두 권태와 피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더니티는 이관형의 이 말대로 ‘이 층에서는 양식을 잡숫고 아래층에 와서는 깍두기를 집어먹는’ 그런 것이었을까? ‘양식’, ‘깍두기’ 등과 같은 ‘먹거리’를 매개로 한 이 비유의 적실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먹거리’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 일상 생활에서 돌이킬 수 없이 굳어진 단어가 되어 버렸다. 혹시 식민지 모더니티의 운명 역시 이 단어의 형성 과정과 유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먹거리’를 통해서 식민지 모더니티를 재구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흥미로운 사례가 많이 있다. 먼저 이광수의 『무정』(1917)을 보자. 경성학교의 영어 교사 이형식이 정신여학교 졸업생 김선형에게 영어 과외를 하기 위해 유월의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는 안국동 네거리에서 김 장로의 집으로 나아가는 장면의 묘사로부터 소설은 시작된다. 흥분과 기대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걷어가는 이형식 앞에 대팥밥모자를 눌러쓴 한량 신우선이 나타난다.

“대관절 어디로 가는 길인가. 급지 않거든 점심이나 하세그려.”

“점심은 먹었는걸.”

“그러면 맥주나 한잔 먹지.”

“내가 술을 먹는가.”

“그만 두게. 사나이가 맥주 한잔도 못 먹으면 어떡한단 말인가. 자, 잡말 말고 가세” 하고 손을 끌고 안동 파출소 앞 청국 요릿집으로 들어간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1916년이다. 요컨대 이 장면은 『혈의 루』(1906)의 속편(續篇)격으로 쓰인 이인직(李人植)의 『모란봉』(1913)에서의 다음 장면과 정확히 대응된다.

옥련이가 침대(寢臺)에 내려서 구 씨를 인도하여 테이블 앞 교의(椅子)에

않게 하고, 옥련이는 그 맞은편 교의에 걸터앉으며 손으로 초인종(招人鐘)을 꼭 눌러서 뽀이를 부르더니 커피차와 부란테와 과자를 갖추어 놓는다.

‘커피차’와 ‘부란테’(brandy)를 마시는 옥련과 구완서가 미국에서 돌아 온 주인공들임을 우리는 안다. 한편 19세기 말에는 일본의 삿포로 맥주가 조선에서 판매되고 1900년경에는 에비쓰 맥주, 아사히 맥주, 기린 맥주 등이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었다는 기록에 따르면, 1916년 식민지 수도의 한복판에서 당대 최첨단의 지식 청년 이형식과 신우선이 만나자마자 맥주를 마시러 청요릿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이형식은 맥주를 마시지 않았다. 신우선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는 김 장로의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의 묘사가 또한 걸작이다. 양반이요 재산가인 김 장로의 집 앞에서 이형식은 “이리 오너라.”라는 자못 고색창연한 방식으로 자신의 내방(來訪)을 알리는데, “중문을 지나” 당도한 “안대창”은 “반양식으로 유리문도 하여 달고 가운데는 무늬 있는 책상보 덮은 테이블과 네다섯 개 홍모전 교의”가 놓여 있는 ‘신구 혼합’의 장소다. 거기에서 그는 “은으로 만든 서양 숟가락”과 함께 “복숭아 화채”를 대접 받는다.

새로 당도한 서양의 문물과 구래(舊來)의 전통이 충돌하는 현장이야말로 『무정』을 읽는 또 다른 재미일 것인데, 과연 첫 장면부터 제시되는 이러한 ‘신구’의 어지러운 뒤섞임은 이 소설의 전편에 걸쳐 계속된다. 대동강 물에 몸을 던지려 경성을 떠난 영채는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병욱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맞는다. 이 새로운 인생이 영채가 처음 보는 새로운 ‘먹거리’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자, 이것 좀 잡수श्य요” 하고 그 지갑의 뚜껑을 연다. 영채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구멍이 송송한 떡 두 조각 사이에 얇은 날고기를 끼인 것이다. (중략) 영채도 한 개를 집어서 그 부인이 먹는 모양으로 먹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먹는 것인지 몰랐었다.

요컨대 영채가 신여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송송한 떡 두 조각 사이에

얇은 날고기를 끼인' 그것이 '샌드위치'임을 알게 되는 것에 다름 아닐지도 모른다. 커피, 샌드위치 등의 서양 '먹을거리'가 일상의 감각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례들을 한국 소설들은 풍부하게 보여 준다. 한국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최정점으로 평가되는 이기영(李箕永 1895-1984)의 『고향』(1936)에서의 다음과 같은 장면은 이 소설을 읽는 방식이 반드시 노동 동맹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틀만으로 고정될 수는 없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읍내로 산보 가자.”

“뭐 사줄 테야?”

“뭘 사 주니?”

“연애 사탕!”

“호호호……. 연애 사탕이 뭐냐?”

“쪼코렛도 몰라?”

(중략)

“그러나 시골놈들이 쪼코렛트를 먹을 줄 알까? 없으면 어찌구?”

‘쪼코렛트’라는 사소한 기호 하나가 이렇듯 ‘서울/시골’의 경계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가 실은 ‘서양(일본)/조선’이라는 경계의 정확한 복사판임은 말할 것도 없다. 동시에 시골 읍내까지 장악한 이 달콤한 서양 ‘먹거리’의 위력은 열다섯 살의 동기(童妓)를 데리고 혼마찌(本町) 나들이에 나선 『태평천하』(1938, 채만식)의 윤직원 영감의 다음 대사와 겹쳐 읽을 때 더욱 생생해진다.

“난찌? 난찌란 건 또 무어다냐.”

“난찌라구, 서양 즘심 말이에요.”

“서양 즘심?”

“내에, 픽 맛이 있어요!”

“아서라! 그놈의 서양밥, 말두 내지 마라!”

“왜요?”

“내가 그년의 것이 좋다구 히여서, 그놈의 디 무어라더냐 허닌 디를 가서, 한번 사먹다가 돈만 내버리구 죽을 뻔하였다!”

서양 ‘먹거리’나 기호품(嗜好品)이 안겨 주는 새로운 감각에 온몸을 내맡기고 그것의 표현에 서슴없었던 작가로는 이효석(李孝石)만한 사람이 없다. 커피나 양과자, 온갖 서양 물건들에 대한 그의 집착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다음 구절은 그중의 하나이다.

경성에서 나남까지는 약 십 리의 거리였으나 나는 나남을 문 앞 같이 자주 다니게 되었다. 경성의 마을을 사랑하는 한편 나남의 거리도 마음에 든 까닭이었다. 기차로도 다니고 뺨스로도 달리고 때로는 고개를 걸어 넘기도 하였다. 그곳에 간 지 달포도 못 되어 나는 거리의 생활의 지도를 역력히 머리 속에 넣어 버렸다. 빵은 카네코가 제일이요 책사는 북광관이 수수하고 찻거리는 팔진옥에 구비되었고 코오피는 ‘동’의 것이 진짬이라는 것을 행하게 익혀 버렸다. 빵 한 근을 사러 십 리 길을 타박거릴 때도 있고 코오피 한 잔 먹으러 뺨스에 흔들린 때도 있었다.(이효석, 「고요한 ‘동’의 밤」)

‘코오피 한 잔을 먹으러 버스에 흔들리며’ 먼 길을 가는 이효석의 이호사 취미를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식민지의 문화적 절망을 겪어 보지 않은 후세의 안이한 시선의 소산일지도 모른다. 예컨대 그것은 “ADVENTURE IN MANHATTAN에서 진—아—더—가 커피 한 잔 맛있게 먹더라. 크림을 타 먹으면 소설가 구보 씨가 그랬다— 쥐 오줌내가 난다고. 그러나 나는 조—엘 마크리— 만큼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니”¹⁾라고 한 이상(李箱)의 절망과도 유사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모더니티란 물론 서양 ‘먹거리’에 대한 개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자기’, 즉 ‘민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서양 ‘먹거리’의 감각을 통해서 민족의 ‘먹거리’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먹거리’를 ‘민족 문화’의 상상으로 연결시킨 가장 전형적인 소설적 사례는 이광수의 장편 소설 『흙』(1932)의 다음 장면, “익선동 꼬불꼬불한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인 ‘한 선생’의 ‘삼간 마루방’에서 눈 오는 어느 날 밤에 열린 “만찬회”의 장면일 것이다. ‘곰국’ ‘갈비’ ‘구운 염

1) 이상, 「실화」. Adventure in Manhattan은 Jean Arthur와 Joel McCrea 주연의 1936년도 할리우드 영화.

통’ ‘뱅어저냐’로 차려진 식사가 ‘미국 박사’에 의해 ‘조선 디너’로 발화되는 것과 함께, 음식과 민족을 연결하는 ‘민족 문화’의 상상력이 발동된다.

“오래간만에 조선 디너를 먹습니다.”

하고 미국으로부터 십여 년 만에 돌아온 이견영은 극히 감격한 모양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하였다.

(중략)

“갈비는 조선 음식의 특색이지요.”

하고 어떤 학생이,

“갈비를 구워서 뜯는 기운이 조선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기운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응 그런 말이 있지.”

하고 한 선생이 갈비 뜯던 손을 쉬며,

“영국 사람은 피 흐르는 비프스테이크 먹는 기운으로 산다고”

하고 웃는다.

“뜯은 음식에도 각각 국민성이 드러나는 모양이지요.”

하고 또 한 학생이,

“일본 요리의 대표는 사시미(어회)이지요. 청요리의 대표는 만두, 양요리의 대표는 암만해도 로스트 치킨(닭고기 구운 것)이지요.”

“여기는 토스티드 하트(염통 구운 것)가 있습니다. 하하.”

음식과 민족을 연결하고 나아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진단하는(“갈비를 뜯는 기운이 조선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기운”) 이 상상 혹은 표상의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심오하다. 요컨대 그것은 ‘사시미’, ‘만두’, ‘로스트 치킨’으로 표상되는 ‘각각의 국민성’에 ‘토스티드 하트’를 내뱉으로써 ‘민족’을 구성하고 ‘만국공법’의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이 자리에서는 ‘염통 구운 것’)는 ‘토스티드 하트’로 발화됨으로써 비로소 ‘사시미’, ‘로스트 치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곰국’, ‘갈비’, ‘뱅어저냐’ 등으로 차려진 ‘만찬’이 “조선 디너”로 발화되는 것, 그리고 “김치는 음식 중에 내셔널 스피릿(민족 정신)”이라는 대사가 암시하듯, 결코 ‘서양’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말이다.2)

개인의 감각 속에 깊이 새겨진 음식의 세목들을 불러냄으로써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이야말로 문학 예술이 감당하는 중요한 몫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학의 모더니티일 것이다. 그 점에서 시인 백석(白石 1912~1995)을 상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의 시가 풍요로운 가족 공동체의 따뜻한 기억을 다양한 ‘떡거리’를 불러냄으로써 되살리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가령 그의 대표 시 중 하나인 「여우 난골죽」(1936)에서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자.

먼집에 반디젓 담그려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삼촌엄매 사촌누이 사촌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떡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반디젓(밴댕이젓), 인절미, 송구떡(송기떡), 콩가루차떡, 두부, 콩나물, 볶은 잔디(잔대-초롱꽃과의 다년초), 고사리, 도야지 비계 등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의 목록이 환기하는 세계는 따뜻하고 풍요로운데, 이 따뜻한 온 동시에 김유정(金裕貞, 1908~1937)의 「떡」(1935)이라는 단편에서의 다음과 같은 비참함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옥이는 황급히 얼른 잡아채었다. 이밥, 이밥. 그 분량은 어른이 한때 먹어도 양은 좋지 차리라. (중략) 찬장 앞으로 가더니 손뱍만 한 시루떡이 나온다. 받아들고는 또 널름 집어치웠다. (중략) 아마 음식은 목구멍까지 꼭 찼으리라, 여기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 역시 떡이 나오는데 본즉 이것은 팔떡이 아니라 밤 대추가 여기저기 빠져 나온 백설기. 한번 덩씩 물어 떼이면 입 안에서 그대로 스프르 녹을 듯싶다. (중략) 물론 용감히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빨리 먹었다. 중간에는 천천히 먹었다. 그러다 이내 다 먹지 못하고 반쯤 남겨서는 작은아씨에게 도로 내 주고 모로 고개를 돌렸다. 옥이가 그 배에다 백설기를 먹은 것도 기적이려니와 또한 먹다 내놓은 이것이 기적이라 안 할 수 없다. (중략) 하여간 너 이것은? 하고 주악이 나왔을 때 옥이는 조

2) 이 점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필자의 다른 글 「‘결여’로서의 국문학」, (『사이間SA I』 창간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6.)을 참조하기 바람.

금도 서슴지 않고 받았다. 그리고 한 놈을 손끝으로 집어서 그 꿀을 쪽쪽 빨더니 입속에 집어넣었다. 그 꿀을 한참 오기오기 씹다가 꿀떡 삼켜 본다. 가슴만 뜨끔할 뿐 즉시 떡은 도로 넘어온다. 다시 씹는다. 어깨와 머리를 앞으로 꾸부리어 용을 쓰며 또 한번 꿀떡 삼켜 본다. 이것은 도시 사람의 일로 생각되지 않는다. 허나 주의할 것은 일상 굶아만 온 굶주린 창자의 착각이다.

‘코요피’와 ‘부란데’와 ‘쫄코렛트’와 ‘난찌’와 ‘샌드위치’, 그 한편에서 굶주림에 지친 소녀가 ‘이밥’에 눈이 뒤집히고, ‘시루팔떡’을 집어삼키고, ‘백설기’를 넘기고, ‘주약’³⁾을 먹고는 마침내 탈이 나서 죽고 마는 비참함. 이것이야말로 비틀리고 뒤엎힌 식민지 모더니티의 정확한 음화(陰畵)일 것이다. 아니 그것은 모든 모더니티의 정직한 얼굴일지도 모른다.

3) 찹쌀가루에 대추를 이겨 끓는 물에 반죽하고, 설탕에 버무린 팥소 따위를 넣어 송편처럼 빚어서 기름에 지져 꿀에 재운 떡.